

KIA, 김태군 영입 '포수 갈증' 씻는다

내야수 류지혁과 맞트레이드 올 시즌 타율 0.256에 1홈런



리그 9-10위에서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전통의 명가' 두 팀이 트레이드로 돌파구를 찾았다.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5일 내야수 류지혁(29)과 포수 김태군(33)을 바꾸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우투우타인 김태군은 대동중-부산고를 졸업하고 지난 2008년 LG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16년 차 베테랑으로 2013년 신생팀 특별지명으로 NC로 이적했다. 이후 경찰(2018-2019년)에서 군 복무를 마쳤고, 2021년에는 트레이드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통산 15시즌 동안 1230경기에 출전한 김태군은 타율 0.248, 25홈런, 279타점, 250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49경기에서 나와 타율 0.256, 1홈런, 18타점, 7득점을 만들었다.

우투좌타인 류지혁은 선린중-충암고를 거쳐 지난 2012년 두산에 입단했고, 상무(2013-2014년)에서 군 복무를 했다.

2020년 우완 홍건희와의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었고, 프로 통산 10시즌 동안 787경기에서 나와 타율 0.271, 12홈런, 202타점, 318득점, 48도루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김도영이 부상으로 빠진 사이 3루를 지키면서 톱타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두 팀의 트레이드는 취약 포지션 보강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KIA에 '포수'는 최근 몇 년 간 가장 뜨거운 자리다. 지난 시즌에도 포수 자리에 변화가 많았다.

스토브리그에서 박동원 영입에 실패한 KIA는 키움 히어로즈에 2024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포수 주효상을 영입했다.

시즌 개막 후 결국 KIA는 박동원을 불러들이는

데는 성공했다. 4월 내야수 김태진과 현금 10억원, 2023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면서 소문이 무성했던 박동원 트레이드에 성공했다.

5월 다시 포수가 트레이드 카드가 됐다.

KIA는 포수 김민식을 SSG 랜더스에 내줬다. 대신 좌완 김정빈과 내야수 임석진을 영입하면서 KIA의 안방 자리에 또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시즌이 끝난 뒤 박동원이 FA 계약으로 LG로 이적하면서 포수를 놓고 요란한 시즌을 보냈던 KIA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 모든 트레이드를 주관했던 장정석 단장이 박동원과 다년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해임되는 등 KIA는 명예와 실리 모두 잃었다.

포수 나비 효과는 올 시즌에도 이어졌다. 야수진의 부상 속 벤치의 엿박자 운영까지 더해져 9위까지 추락한 상황, KIA 포수 중 가장 경험 많은 한승택까지 내복사근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다시 한번 트레이드가 진행됐다.

KIA 입장에서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은 트레이드이기도 하지만 박동원에 이어 김태군도 '예비 FA'인 만큼 구단의 장기 전략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삼성 입장에서 트레이드로 급한 불은 졌다.

삼성은 지난 4월 불펜 강화를 위해 베테랑 내야수 이원석을 카드로 활용해 키움과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불펜 강화 효과 보다는 내야 선수층만 얇아졌다.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경험 많은 베테랑의 이탈 속 삼성은 그라운드 인팍에서 흔들리면서 최하위까지 추락했다.

삼성은 전천후 내야수이자 파이팅 넘치는 덕아웃 리더를 영입하면서 '원인 트레이드'가 됐다.

KIA와 삼성은 하위권에서 경쟁하면서, 성적은 물론 구단의 운영면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다. 트레이드로 분위기를 바꾼 두 팀이 명가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팬들의 시선이 구단과 벤치에 쏠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삼성에서 KIA로 이적한 포수 김태군(오른쪽)이 5일 SSG와의 원정경기에 앞서 덕아웃에서 김중국 감독과 악수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류현진 398일 만에 실전 등판 ... 루키리그 3이닝 1실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398일 만에 실전 경기에 등판해 건강한 몸으로 공을 던졌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터너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루키리그 FCL 타이거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4피안타 5탈삼진 1실점 했다.

류현진은 재활 차원에서 공을 던졌으며, 성적보다는 몸 상태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토론토 산하 FCL 블루제이스 소속으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산하 마이너리그 루키팀인 FCL 타이거스의 유망주 선수들을 상대했다. /연합뉴스

류현진은 1회초에 실점했다. 새뮤얼 킬을 내야 뜬 공으로 잡은 뒤 2번 타자 아이버슨 리어나도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3번 타자 호수에 브리세뇨에게 좌익수 방면 2루타, 4번 타자 클레이턴 캠벨에게 중견수 방면 2루타를 허용해 점수를 내줬다.

류현진은 계속된 2사 2루 위기에서 레일린 페레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으며 1회를 마쳤다.

2회에 선두타자 오스틴 솔츠에게 좌익수 방면 2루타를 내줬으나 후속 타자 3명 모두 범타로 잡아내 실점을 막았다. 마지막 3회에 킬, 리어나도를 연속 루킹 삼진으로 잡았다. 이후 브리세뇨에게 중견 안타를 내줬으나 캠벨을 루킹 삼진으로 잡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연합뉴스

16세 유진 페어 유쾌한 월드컵 도전



한국 축구사상 여자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든 최초의 혼혈 선수인 케이스이 유진 페어(PDA)가 5일 오전 파주 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인 아버지·한국인 어머니 여자 월드컵 첫 혼혈 태극마크 U-17 아시안컵 2경기 5골 "몰모텔 홀란·꿈은 월드컵 우승"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케이스이 유진 페어(PDA)가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나서는 콜린 벨 감독의 최종 선수를 받았다.

이로써 한국 축구사상 여자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든 최초의 혼혈 선수가 탄생했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23인을 발표하면서 페어의 이름을 포함했다.

2007년생 페어는 미국 명문 유소년 팀 PDA에서 뛰는 선수로, 동 연령대 선수들보다 우위인 체격조건을 살린 저돌적 돌파가 강점으로 꼽힌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페어는 복수국적이다. 지난해 15세 이하(U-15) 대표팀 소집 훈련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미국에서도 촉망받는 자원이다.

지난 4월에는 16세 이하(U-16) 대표팀 소속으로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여자 아시안컵 1차 예선에 출전해 2경기에서 5골을 몰아쳤다.

한국 축구사상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나서는 두 번째 혼혈 선수가 됐다.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장대일이 1998 프랑스 남자 월드컵을 앞두고 당시 차범근 국가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장대일은 본선 경기에서는 뛰지 못한 터라, 페어가 1분이더라도 그라운드를 밟으면 월드컵 무대를 누빈 역대 최초 사례로 한국 축구사에 이름을 남긴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중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다는 페어는 "목표는 언젠가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가 돼 동료들과 FIFA 여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목표의 첫 번째 단계인 태극마크와 월드컵행이 현실이 됐다.

페어는 세계 최고 골잡이로 꼽히는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의 결정력을 닮고 싶다고 했다.

FIFA 랭킹 1위로 여자축구 세계 최강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유망주지만, 벨 감독은 체력과 피지컬에 대한 기준이 높다.

페어를 이번 훈련에 부르면서 "능력만 보여준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벨 감독은 혼혈 첫날인 지난달 18일 "어린 선수도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월드컵 명단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강원으로 승점 사냥 나선다

7일 K리그1 21라운드



광주FC가 강원 원정에서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광주는 7일 오후 7시 30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나선다.

새 출발선에 선 광주다.

광주는 앞선 20라운드 홈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자 1위 질주 중인 울산현대를 만났다.

강한 압박과 공격 그리고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했지만 광주의 특점이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쇼에 막혔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박용우에게 헤더를 허용하면서 광주는 0-1,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리그 6경기 연속 무패(4승 2무) 행진이 중단됐지만 광주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포진한 1위 울산에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광주(승점 28)는 앞선 패배로 승점을 더하지 못하면서 5위에서 7위로 내려왔다. 하지만 4위 전북현대(승점 30)와 승점 2점 차에 불과하고, 8위 대구FC와는 승점이 같다. 매 라운드 4-8위의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치열한 순위 싸움이다.

광주는 이번 강원 원정에 이어 11일에는 제주도로 건너가야 하는 장거리 원정 2연전을 앞두고 있

다. 무더위에 강행군이 예정됐지만 광주의 자신감은 넘친다.

이희균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토마스의 적극적인 드리블과 정지훈의 날카로운 슈팅도 든든하다.

아시안과 엄지성은 앞선 울산전에서 교체 멤버로 나서 거침 없는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했고, 이건희는 동료들 활용한 연계플레이와 양질의 패스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은 올 시즌 2승 7무 11패(승점 13점)를 기록하면서 11위에 머물고 있다. 최근 10경기 연속 무승(3무 7패) 부진에 빠져있고, 역대 전적에서도 광주가 7승 10무 5패로 앞서 있다.

광주의 우위가 접착되는 경기지만 공은 동글다. 강원은 한국영과 이정협, 임창우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김대원, 양현준이라는 '슈퍼에이스'로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2023 FIFA U-20 월드컵을 통해 이름을 알린 '브론즈볼' 수상자 이승원도 있다.

광주는 상대 측면 자원의 빠른 역습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 템포로 강원 골대를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강원 원정은 순위 싸움의 중요한 시작점이다. 광주는 강원전에 이어 승점 1점 차 5위인 제주를 만나고, 이어 15일 안방에서 승자 없는 8위 대구와 연달아 만난다.

광주가 강원전 승리로 승점 행진을 재개하고 기분 좋게 제주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안